

1. 전체적인 소감

)): 저는 중학교 시절 요리와 기술 중에 무엇을 배울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부모님의 극구반대에도 공고 전자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전자과를 들어간 후 생각한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1학년에 납땜 기초를 배우게 되는데 기초적인 걸 1학년부터 진도를 못 따라가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선택한 것을 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더 앞섰던 거 같습니다. 전학도 생각했으며,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냥 수업 들으면 언젠가는 익숙해지겠지 하면서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 잘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작업은 할 수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니 반장도 하고 방송부도 들어가서 활동하다 보니 금방 1년이 지나갔습니다. 2학년이 되고 고민을 좀 해보니 전자 쪽으로 나가면 미래가 안 보인다 생각한 저는 대학교라도 조리학과로 꼭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2학년 여름방학부터 요리학원을 다니며 조리기능사 과정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보니 금방 3학년이 되었습니다. 이때 생각한 것이 내 실력으로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한식 양식 취득상태)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희 학교가 특성화고 다 보니 층마다 게시판이 있었는데 게시판에 제일 많이 보인 게 전문학교 포스터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눈에 띈 게 한호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면접 100% 라고 하니 혹 했었습니다. 한호전 같은 경우 매달 지원자를 뽑고 있었으며 호텔조리계열, 호텔제과제빵계열 바리스타식음료계열 등등 엄청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한창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홈베이킹을 하던 시절이라 제과제빵 쪽으로 지원하자 하고 3학년 초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엄청 간단했습니다. 우리학교는 전문적인 인재양성으로 실습위주의 수업을 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일단 보험으로라도 한호전을 합격해 두었습니다. 그 후 저희 학교가 특성화고 인지라 국가에서 필수로 취득하라고 하는 전자 자격증도 따고 하다 보니 벌써 9월이 되고 1차 수시접수를 했습니다. 이

때도 덤벼대고 실수한 게 자격증전형 지원해야 하는 걸 특성화전형으로 하고 고난의 연속 이였습니다. 신안산대는 2차 수시에 지원하였고 여러 대학면접도 보면서 느낀건 아직도 생각나는 게 면접관님들 면접 온 애들에게 춤추고 노래시키시고 하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진짜 진지하게 면접에 임하려고 온 건데.. 또한 제가 모르는 대학들이 너무 많다는 것 이였습니다. 대학교 알리미 서비스도 조회를 많이 해봤지만 조리사로 살아남기 136p 에 전국 전문대학 조리학과가 깔끔하게 정리 되어있는 만큼은 아니 었습니다.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 책을 좀 더 빨리 봤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수시 끝내고 한호전과 신안산대 어디로 가야하나 고민하다가 신안산대 조리학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도 요리학원 다닐 때도 자격증 많은 애들, 칼질 잘하는 애들 보면서 내가 많이 늦은 건가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과연 정답인 건가 진짜 많은 고민을 걱정도 많이 합니다. 이 조리사로 살아남기를 읽다보면 의미 없는 경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20살 된 대학생 새내기가 사회를 알고 세상을 안다고 그러실 수 있지만 공고 도 그렇고 알바도 주차장 안전요원 알바도 해보고, 국수집 서빙, 쿠팡 상하차(고딩때), 현재 떡볶이 집 주방 까지 어찌 보면 힘든 일 들이지만 다시 돌아보면 살이 되고 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 미래를 정하기는 이르지만 차곡차곡 돌을 쌓듯이 경험해보고 노력하다 보면 성공 할 수 있겠죠?

2.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과 이유

)):176p 남과 같이해서는 남 이상이 될 수 없다.

책장사가 되었던 조리사가 되었던 간에 무엇을 하든지 남들과 똑같이 놀고, 먹고, 잔다면 남들보다 더 좋은 미래는 없는 뜻 인거 다들 RG?

)): 이 부분이 제일 기본적인 적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저에게는 엄청 마음속으로 와 닿는 느낌 이였습니다. 뭔가 더욱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이 조리사의 길을 걷고 싶은 마음입니다.

3. 본인의 결단이나 각오

)): 남들보다 더 열심히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다면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모든지 궁금해 하는 습관을 가지며 많은 경험을 할 것입니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